

무의식 언어로 펼쳐낸 내면의 풍경

최인선 개인전 '회화의 고백'...오는 25일까지 GIST 오희아트홀

미니멀 추상부터 색면 회화까지... '생명력' 담은 회화 여정 선보여

"작업 과정 속에서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기호가 불쑥 올라오기도 합니다. 제 안의 무의식에서 올라온 작품들을 통해 관람자들이 자기 안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회화를 통해 할 수 있는 역할 아닐까요?"

현대미술 작가 최인선(홍익대 회화과 교수)의 대규모 개인전이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희아트홀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 제목은 '회화의 고백'.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총 27점의 작품을 통해 집약적으로 조명한다.

광주 인성고등학교 출신인 작가가 고향에서 전시를 여는 것은 약 15년 만이다. 특히 200호 규모의 대형 작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개인전은 미니멀 추상에서 시작해 색면 회화로 확장된 작가의 회화 여정을 펼쳐 보인다.

전시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대표작은 단연 '흰'이다. 1

990년대 초 제작된 이 작품은 '겨울에 생산된 흰색'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돼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됐고, 이후 2018년 '흰'이라는 명제를 부여받으며 다시금 회화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단순한 흰색 물질을 축적해나가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회화의 정의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다"며 "형상 없는 색의 밀도를 쌓아가며 회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묻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 언어적 기호의 역할을 강조했다. 화면 위 우연히 드러난 듯한 텍스트나 기호들은 인간 본성의 무의식을 형성하는 언어의 흔적이라는 전제 아래 등장한다. 이는 관객들에게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창의적 자아를 환기시키는 '도구'로 작동한다.

작가의 화면은 생각과 감정, 감각, 직관 같은 인간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형상과 언어, 색채를 넘나들며 완성된 그의 회화는 단순히 이미지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 숨 쉬는 존재처럼



'흰'

강한 생명력을 드러낸다.

반복적으로 쌓아올린 붓질과 색의 밀도는 리듬감 있게 화면을 채우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상과 감정이 만들어지며 관람자 앞에 생생하게 다가온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 온 '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사유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2000년대 이미지 작업과 형상 기반 회화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전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역시 색과 감각, 사고가 혼재된 추상의 세계다.

한편 작가는 예술가로서의 활동 외에도 2018년 인카



15년 만에 고향에서 전시회를 갖는 최인선 작가

네이션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 청년작가 창작지원과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청년작가 7명 내외를 선정해 예술상을 수여하고 예술장학금 및 창작지원금(1명당 1천만 원)을 후원한다. 지금까지 약 17억원의 사재를 들여 어린이·노약자 의료비에도 기여하는 등 예술 안팎에서 이타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최명진기자

'꿈꾸는 정원에서 꿈을그리다'

서순례 개인전...30일까지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은 7월 "오는 30일까지 전시갤러리에서 서순례 작가의 개인전 '꿈꾸는 정원에서 그리다'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꿈꾸는 정원'

이번 전시회는 '꿈꾸는 정원에서 그리다'를 주제로 여러 겹의 한지를 덧붙인 후 채색해 입체감 있는 표현이 돋보이는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겹겹이 쌓아 올린 나뭇잎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상과 삶의 결을 사유의 숲으로 표현했다.

서순례 작가는 세한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개인전 15회, 다수의 그룹, 초대전을 열었으며 현재 전남도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 이사, 목포여성작가회원, 목포역 미술관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서 작가는 "어머니의 품같이 온아하고 넉넉한 정원 속에서 힐링의 순간을 마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은빛 공예, 그 매력에 스며들다

오병욱 초대전, 내달 21일까지 전남대박물관

은빛 공예의 섬세함을 만나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전남대학교박물관은 오는 8월21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실에서 오병욱 초대전 'Jewelry & Silver Objet'을 선보인다.

오병욱 작가는 자연의 형태와 다양한 재료의 융합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는다. 실용성과 미적 가치를 아우르며 정교한 설계와 숙련된 기술, 긴 시간의 집중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낸다.

금속을 주재료로 판금과 단조 기법을 활용한 조형 작업뿐 아니라 목재를 결합한 실용 가구 디자인, 선악스를 활용한 테이블웨어 제작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작업 범위는 폭넓다.

특히 표면 질감을 살린 세공 위에 금부(金鈇, keumboo) 기법을 더해 입체적이고 공간감 있는 조형미를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는 전통 은공예기법에 현대적 조형 감각을 접목한 주얼리 작품을 비롯해 펜 홀더, 접시, 꽃병 등 다양한 생활 소품이 전시된다.

은의 은은한 광택과 세밀한 세공, 여기에 한국 고유의 금부 기법이 더해지며 수수하면서도 화려한 공예미가 돋보인다. /최명진 기자



'Pen Holder 21-2'

잊혀진 역사의 조각과 지혜들

서홍석 개인전...10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잊혀진 무기 '쇠뇌'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지혜를 돌아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은 2025년 '전시공간지원사업' 네 번째 전시로 오는 10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서홍석 작가 개인전 '쇠뇌 찾아가는 박물관: 사라진 역사의 조각, 되살아나는 지혜'를 선보인다.

'전시공간지원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전시 기회를 통해 시민 문화향유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작가는 전시에 등장하는 '쇠뇌'를 단순한 전쟁 무기가 아닌, 우리 민족의 과학적 사고와 기술력이 집약된 문화유산으로 바라본다.

'찾아가는 박물관'이라는 콘셉트 아래, 쇄뇌 실물과 더불어 그에 얽힌 역사적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해, 박물관의 문턱을 낮춘 체험형 전시로 풀어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시공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고대활

그린 알로에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